



대학주보

한 총장, “미래 환경 대응할 교육 혁명 급선무”

김가연 기자 rkds0617@khu.ac.kr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비대면 학기 속에서 대학은 큰 변화를 맞았다. 우리신문은 한군대 총장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교육과 대학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 총장은 앞으로의 비대면 교육의 발전 가능성과 우리학교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생활 환경의 제한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정신적 지원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학 운영에 관한 부

분에선 취임 이래 꾸준히 노력한 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논하며 대학의 선순환 재정 구조를 희망했다. 아래는 한 총장과의 1문 1답이다.

Q. 코로나 시대 이후 비대면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예측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장이 바라본 비대면 교육의 현실은 어땠으며 가능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코로나 상황 이후의 계획은 어떠한가?

A. 우리학교는 지난해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했고 구성원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많은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명품 온라인 강좌, 플립 러닝 강좌 등을 통해 비대면 수업 노하우를 축적했던 경험은 팬데믹 시대의 비대면 수업 제공에 큰 도움이 됐다. 향후 학습자들의 요구, 교육부의 제도, 우리학교의 지원 범위를 고려해 양질의 온라인 강좌를 발굴 및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교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대학교육혁신사업의 일환으로 19개의 강의실을 자동 녹화 강의실로 탈바꿈시키는

등 스마트 캠퍼스 구축도 시도하고 있다.

Q. 해외 거주, 기계 곤란 등으로 원활한 비대면 강의 수강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계획하는 지원 방안이 있는가?

A. 지난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전면 비대면 수업이 시행되며 해외 거주 학생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대면 수업은 기본적인 학습 환경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기 접근

성과 공간에 대한 요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캠퍼스 구축 후에는 일원화된 비대면 수업 환경을 제공하고 서버 용량을 증설하며 해외 거주 학생을 위한 비대면 수업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다만 시차 문제 등 해외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습자들을 늘 염두에 두고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4면 '총장 인터뷰'로 계속

5년 만에 우승한 양궁부

강나윤 기자 nadori814@khu.ac.kr

우리학교 양궁부가 제55회 전국 남녀양궁종별선수권대회 여자대학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지난 13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단체전에서 우리학교 임두나(스포츠지도학 2020), 정지서(스포츠지도학 2019), 김예후(스포츠지도학 2020), 김서영 선수(스포츠지도학 2021)가 출전해 정상에 올랐다. 임두나와 정지서 선수는 싱클라운드 개인전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따냈다.

선수들은 단체전에서 4천79점을 명중시키며 목원대(4천73점)와 안동대(4천41점)를 따돌리고 5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는 이틀간 치러진 경기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 경기에선 단체 3위로 다소 부진하게 출발했지만 다음 날 경기에서 정지서 선수가 높은 점수를 쏴 역전에 성공했다.

▶3면 '양궁부 우승'으로 계속



우리학교 양궁부가 제55회 전국남녀양궁종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사진=최희라 감독 제공)

절대평가 A학점 비율 급증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김경민 기자 elude12@khu.ac.kr

코로나19로 비대면 체제에 들어서며 학점 인플레이션(인플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3일 공개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우리학교의 2020년 1학기 A학점 비율은 60%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평가였던 2019년 1학기 대비 23.3%p 상승한 결과다.

우리학교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2020년 1학기부터 성적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병행되면 수업 환경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40% 이내의 수강생만 B+이상을 받을 수 있는 학점표준화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3면 '학점 인플레'로 계속